

문제1.

제시문들은 각각 죽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가)와 (다)는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제시문(나)는 고릴라, 즉 동물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제시문 (가),(다)와 제시문 (나)는 죽음의 인식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제시문 (나)의 고릴라는 죽음을 인식 못하고 있다. 우두머리의 아들이 마체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체사를 구타한 것과 마체사의 딸이 움직이지 않는 어미의 젖을 빨려고 한 것, 구타가 중단될 때마다 마체사의 털을 골라준 것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가), (다)의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건 인간만이 가진 타고난 특수성이며 이 때문에 죽은 자의 매장은 인간됨의 근본 현상이 된다.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이다. 제시문 (라)의 죽음을 인식하는 주체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시문 (가)와 그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제시문 (다)는 죽음을 기피 대상으로 본다. (다)에 따르면, 인간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죽음은 부패와 악취같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는 것이다. 또, 인간은 죽음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이 공포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심화되고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다)와 달리 제시문 (가)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붙잡아 뉘야 한다고 본다. (가)에 의하면, 죽은 자를 보존하는 행위인 매장에서 인간의 특수한 의미가 파생되며 이는 곧 인간됨을 구성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죽은 자를 매장함으로써 옆에 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의 무덤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죽음을 붙잡아 뉘야 하는 것으로 인식 했으며 나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문제2.

제시문 (라)에서는 배설물과 연관된 상황이나 말이 죽음에 대한 연상과 갖는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1은 집단 갑에게는 배설물에 관해 연상하도록 하고 집단 을에게는 친구에 관해 연상하도록 했다. 실험결과로 집단 갑이 집단 을보다 죽음과 연관시켜 완성한 단어의 수가 3배 가량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실험2는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들을 갑 집단으로 설정하고 화장실과 떨어진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을 집단으로 설정했다. 실험 결과는 실험1과 비슷하게 갑 집단이 을 집단보다 3배 가량 적은 단어를 완성시켰다.

실험을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보면, 배설물과 죽음에 대한 연상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죽은자를 매장을 통해 옆에 붙잡아 두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배설물에 의해 죽음에 대한 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일면이 없는 타인들보다 옆에 있어주는 친구를 연상하게 한 실험 1의 을 집단의 단어 수가 많은 것을 설명 할 수 있다.

실험을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보면, 배설물과 죽음에 대한 연상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의 인간은 죽음을 기피한다. 그러므로 같은 기피대상인 배설물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실험1과 실험2의 집단 갑에게 죽음에 대한 연상을 기피하게 한 것이다. 이는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위 실험은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세상에는 죽음을 기피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이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절대 다수의 인간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이는 (다)의 주장과 뜻을 같이한다